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[미국 경제]
- YahooFinance: 내년 미 예상 인플레 상승…3.7%로
- CNBC: 오늘 발표 연준 의사록, 금리 향방 시사할 듯

[미국 금융]
- CNBC: 중동 불안으로 미 국채 일제히 상승…10년물 4.57%
- Bloomberg: 트럼프 이란 강경 발언 후 미 증시 하락세

[뉴욕시]
- CNBC: 맨해튼 2분기 임대 시장 활발…AI 기업 수요 폭발

[중동 전쟁]
- WSJ: 트럼프 “이란과 휴전 끝났다” 긴장 커져
- CNBC: 마켓 플랫폼 Kalshi “호르무즈 정상화 2027년 되어야”

[오일]
- CNBC: 중동 긴장에 오일가 7% 상승

[글로벌 경제]
- WSJ: IMF, “이란 전쟁에 따른 글로벌 침체는 없을 듯”

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- CNBC: 델타, 라운지 이용 제한한 ‘베이식 비즈니스’ 요금제

[오늘의 금융 지표]
- 미 증시 지수, 미국 국채 금리와 주요 환율

[미국 경제]

YahooFinance: NY Fed survey: U.S. inflation expectations hit 3-year high in June
내년 미 예상 인플레 상승…3.7%로

- 뉴욕 연은이 어제 화요일 발표한 ‘2026년 소비자 기대 인플레 조사’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향후 1년에서 3년 사이에 기대 인플레가 더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. 이는 지난 2022년과 2023년 이래 겪어 보지 못했던 인플레 수준이라는 것.
-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1년 뒤 중간 기대 인플레는 5월 기대 인플레인 3.5%에서 3.7%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.
- 3년 후 기대 인플레는 0.2% 포인트 상승한 3.3%로 이는 지난 2022년 6월에 도달했던 수준이다. 5년 후 기대 인플레는 3.0%로 변동이 없었다.

기사

CNBC: Fed meeting minutes to show ‘family fight’ over rates. The squabble could drag on for a while
오늘 발표 연준 의사록, 금리 향방 시사할 듯

- 연준 위원들은 올해 금리를 딱 한 번만 올린 뒤 동결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밝혔다.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여기서 멈추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.
- 즉, Jim Bullard 전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"모두 금리 인상을 한 번만 얘기하는데, 연준은 보통 그렇게 안 한다. 겨우 한 번 올릴 거면 대체 왜 올리겠냐?"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.
- 연준의 정확한 향후 정책 방향은 오늘 수요일에 공개되는 6월 FOMC 의사록을 통해 더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.

기사

[미국 금융]

CNBC: 10-year Treasury yield jumps to 4.57% as jumping oil prices reignite inflation fears
중동 불안으로 미 국채 일제히 상승…10년물 4.57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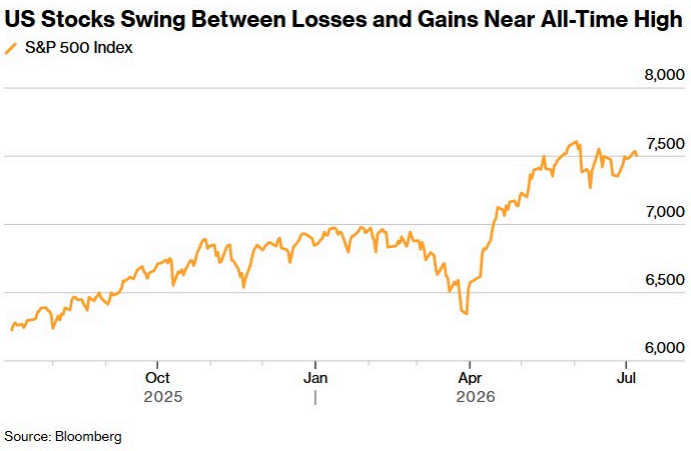
- 트럼프가 나토 정상회의에서 "이란과의 휴전은 끝났다"라고 발언하자, 유가 폭등에 따른 인플레 우려로 미 국채 금리가 일제히 상승했다.
-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3 베이시스 포인트 이상 오른 4.561%를 기록했다. 10년물 금리는 주택담보대출, 자동차 대출 등의 기준 지표.
- 연준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도 3베이시스 포인트 이상 상승한 4.197%를 나타냈으며, 30년물 금리 역시 1베이시스 포인트 이상 오른 5.061%에 거래됐다.

SYMBOL	COMPANY	YIELD	CHANGE
US10Y	U.S. 10 Year Treasury	4.597%	+0.068
US1M	U.S. 1 Month Treasury	3.631%	-0.011
US1Y	U.S. 1 Year Treasury	4.075%	+0.038
US2Y	U.S. 2 Year Treasury	4.226%	+0.064
US30Y	U.S. 30 Year Treasury	5.088%	+0.045
US3M	U.S. 3 Month Treasury	3.82%	+0.002
US6M	U.S. 6 Month Treasury	3.965%	+0.01

기사

Bloomberg: US Stocks Slide After Trump Says Iran Ceasefire Is Over
트럼프 이란 강경 발언 후 미 증시 하락세

- 트럼프의 휴전 종료 발언으로 중동의 불안이 커지자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미국 증시가 하락했다. 연이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.
-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과 S&P500 지수가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. 오늘 수요일도 오전에 1% 가까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. 나스닥 100은 1% 넘게, S&P 500은 1% 가깝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. 유독 에너지와 정보기술(IT) 섹터만 유일하게 강세를 보이고 있다.
- 특히 브렌트유 상승에 힘입어 셰브런과 엑손모빌 등 주요 에너지 기업 주가는 최소 2% 이상 급등했다.



기사

[뉴욕시]

CNBC: Manhattan office leasing sees strongest gains in 20 years
맨해튼 2분기 임대 시장 활발…AI 기업 수요 폭발

- 부동산 관련 Colliers 보고서에 따르면 맨해튼 2분기 오피스 임대 계약 면적은 1천1백2만 평방피트로, 5년 분기 기간의 평균 대비 29.4%, 10년 평균 대비 31.3% 급증했다. 올 상반기 전체 수요는 20여 년 만에 가장 강력한 수준이다.
- 특히 2분기 AI 기업의 임대 규모은 80만 평방피트로 전 분기(70만 평방피트)보다 증가했다.
- 이는 2025년 맨해튼 AI 기업들의 전체 임대 규모를 넘어선 수치다.

기사

[중동 전쟁]

WSJ: Trump Says Ceasefire With Iran Is Over After Latest Attacks
트럼프 “이란과 휴전 끝났다” 긴장 커져

-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 내 이란의 선박 공격을 이유로 이란과의 휴전 협정이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선언했다.
- 그는 이란의 선박 공격을 규탄하며 "이란과의 휴전은 끝난 것으로 본다"라고 밝혔다. 다만 미국이 즉각 전쟁을 재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며, "협상가들이 원한다면 계속 대화하도록 둘 것"이라며 여지를 남겼다.
- 트럼프의 이번 발언 직후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는 일제히 급등했다.

기사

CNBC: Strait of Hormuz traffic won’t return to normal until 2027 after latest setback, Kalshi traders predict
마켓 플랫폼 Kalshi “호르무즈 정상화 2027년 되어야”

- 트럼프가 이란의 상선 공격에 대한 보복 공습 단행 후 "이란과의 휴전은 끝났다"라고 선언하자, 금융 마켓을 예측하는 플랫폼 칼시(Kalshi)의 트레이

더들도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전망을 늦췄다.
- 이 플랫폼에 따르면 올해 12월 1일까지 통행이 정상화될 확률은 44%로 떨어졌으며, 정상화 시점은 2027년 1월 1일(확률 53%)은 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.
- 한편 칼시는 7일 이동평균 통항 선박 수가 60척 이상일 때를 정상화로 판단한다.

기사

[오일]

CNBC: Oil jumps 7% after Trump says ceasefire with Iran is over
중동 긴장에 오일가 7% 상승

- 트럼프가 이란과의 휴전 종료를 선언하며 추가 폭격을 경고하자 국제유가가 또다시 급등했다. 트럼프의 이번 발언은, 화요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유조선 3척 피격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미군이 밤사이 이란을 공습한 직후에 나왔다.
- 이러한 무력 충돌 여파로 서부텍사스 중질유 선물은 7% 상승한 배럴당 75.38달러,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는 57.4% 뛴 배럴당 79.65달러를 기록했다.
- 이들 두개 오일은 장중 한때 6% 이상 치솟기도 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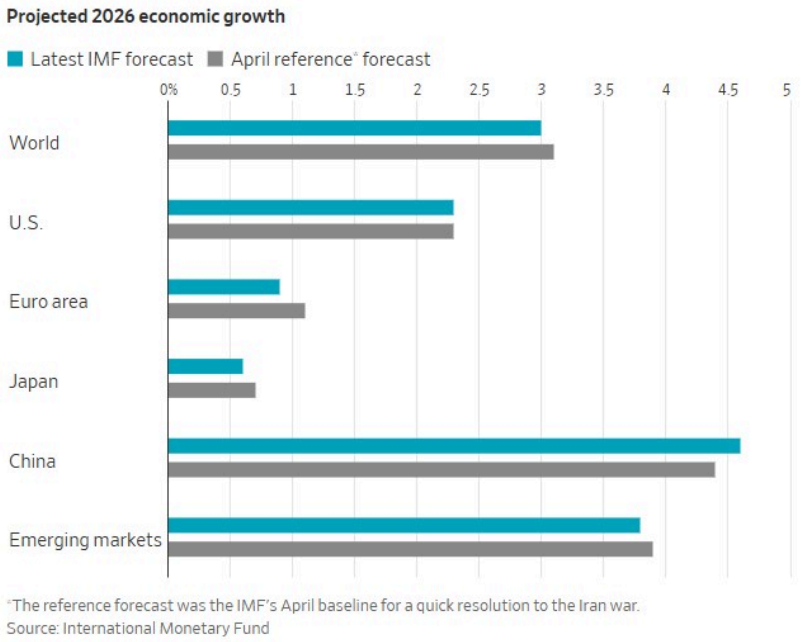
기사

[글로벌 경제]

WSJ: IMF Drops Recession Warning in Wake of June Ceasefire
IMF, "이란 전쟁에 따른 글로벌 침체는 없을 듯"

-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(4월) 3.1%에서 3.0%로 소폭 하향 조정했으나, 장기화된 이란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 경고는 삭제했다.
- 지난 6월 체결된 휴전으로 침체 위험은 크게 줄었으나, IMF는 올해 국제 유가가 2025년보다 평균 32%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. 올해 국가별 성장률은 미국 2.3%(기존 그대로), 고유가와 심리 위축을 겪는 유로존은 0.9%(하향 조정)로 전망했다.

- 물론 이번 발표는 트럼프의 이란 보복 발언 이전에 발표된 것이다.



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
CNBC: Delta launches 'basic business' fares without lounge access, seat selection
델타, 라운지 이용 제한한 '베이식 비즈니스' 요금제

- 델타항공이 '베이직 비즈니스' 요금제를 새로 도입하며 기내 프리미엄석 등급 세분화에 나섰다.
- 이번에 출시된 저가형 '델타 원(Delta One' 요금제는 공항 라운지 이용권과 사전 좌석 지정 혜택이 제외된다.
- 앞서 경쟁사인 유나이티드항공도 올해 초 이와 유사한 요금제를 도입한 바 있다.

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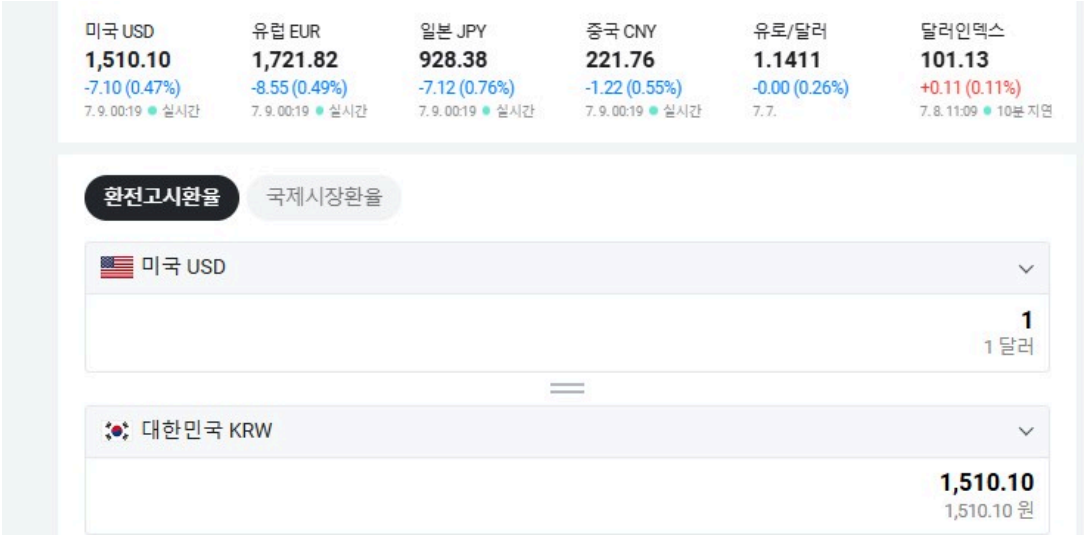
[오늘의 금융 지표: 미 증시 지수, 미 국채, 주요 환율]



US 30	52,155.10	-769.5	-1.45%
US 500	7,436.80	-66.9	-0.89%
Dow Jones	52,129.66	-795.49	-1.50%
S&P 500	7,436.96	-66.89	-0.89%
Nasdaq	25,597.43	-221.26	-0.86%
S&P 500 VIX	18.15	+2.02	+12.52%
Dollar Index	100.982	+0.204	+0.20%

U.S. Treasurys

	COUPON (%)	PRICE CHG	YIELD (%)	YIELD CHG
30-Year Bond	5	-27/32	5.089	0.033
10-Year Note	4.375	-3/32	4.597	0.041
7-Year Note	4.25	-3/32	4.462	0.043
5-Year Note	4.125	-2/32	4.338	0.043
3-Year Note	4.125	-18/32	4.267	0.076
2-Year Note	4.125	-1/32	4.229	0.032
1-Year Bill	0	2/32	4.070	0.088
6-Month Bill	0	0/32	3.965	0.005
3-Month Bill	0	1/32	3.823	0.021
1-Month Bill	0	-1/32	3.634	-0.021



KOCHAM | 445 Park Ave | New York, NY 10022 US

Unsubscribe | Constant Contact Data Notice